



# 판 뒤집나 했더니... 속 뒤집는 日 투수

## 아시아쿼터 성적 희비

국내 출신 타케다 영입한 SSG 내리 3패 부진에 결국 2군행 두산 타무라도 기대에 못 미쳐 대만 출신 한화 왕연청은 보배 호주맨 KIA 제리드도 '제 몫'

올해 프로야구에 도입된 대표적인 제도로는 아시아 쿼터가 있다.

팀별로 1명씩 기용할 수 있는 아시아 쿼터 선수가 전력에 큰 변수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다.

실제로 시즌 초반이기는 하지만 아시아 쿼터의 활약에 따라 10개 구단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가장 속이 타는 팀은 SSG 랜더스다.

SSG는 일본 국가대표 출신 오른손 투수 타케다 쇼타를 영입했으나 타케다는 3경기에 선발로 나와 3패, 평균자책점 13.03을 기록한 뒤 15일 2군으로 내려갔다.

가장 길게 던진 것이 1일 키움 히어로즈와 경기 4%이닝이었고, 이후로는 30닝, 2이닝 만에 마운드를 내려갔다.

2012년부터 2023년까지 일본프로야구 소프트뱅크 호크스에서 올린 통산 66승, 평균자책점 3.33의 기록으로 기대를 모았으나 지금의 흐름이라면 1군 복귀 자체를 장담하기 어려울 수준이다.

두산 베어스 타무라 이치로도 부진한 편에 속한다.

불펜에서 활약 중인 타무라의 성적은 7

구단	선수명	국적	계약 총액
LG 트윈스	라클란 웰스	호주	20만 달러
kt wiz	스기모토 고우키	일본	12만 달러
SSG 랜더스	타케다 쇼타	일본	20만 달러
NC 다이노스	토다 나츠키	일본	13만 달러
두산 베어스	타무라 이치로	일본	20만 달러
KIA 타이거즈	제리드 데일	호주	15만 달러
롯데 자이언츠	쿄야마 마사야	일본	15만 달러
삼성 라이온즈	미야지 유라	일본	18만 달러
한화 이글스	왕연청	대만	10만 달러
키움 히어로즈	가나쿠보 유토	일본	13만 달러

경기에서 1승 1패, 평균자책점 12.86이다.

3월29일 NC 다이노스전 첫 등판에서 기분 좋은 구원승을 챙겼으나 짧은 이닝을 소화하면서도 7경기에서 실점이 없었던 경기가 2경기밖에 없을 정도로 안정감을 주지 못하고 있다.

아시아 쿼터 10명 가운데 7명이 일본인 투수로 채워진 가운데 타케다와 타무라 외에 다른 일본인 투수들의 성적도 빼어난 편은 아니다.

가나쿠보 유토(키움)가 7경기에서 1패, 3홀드, 평균자책점 7.71을 기록 중이고 쿄야마 마사야(롯데 자이언츠)는 6경기 1패, 1홀드, 평균자책점 6.75에 머물렀다.

스기모토 고우키(kt wiz)는 9경기에서 1홀드, 평균자책점 9.00으로 고전하고 있다.

비교적 선전하고 있는 일본인 투수로는 토다 나츠키(NC 다이노스)와 미야지 유라(삼성 라이온즈) 정도를 들 수 있다.

선발로 출전 중인 토다가 3경기 1승 2패, 평균자책점 4.85의 성적을 냈고, 불펜 요

원인 미야지는 7경기에서 홀드 2개, 평균자책점 4.26을 기록 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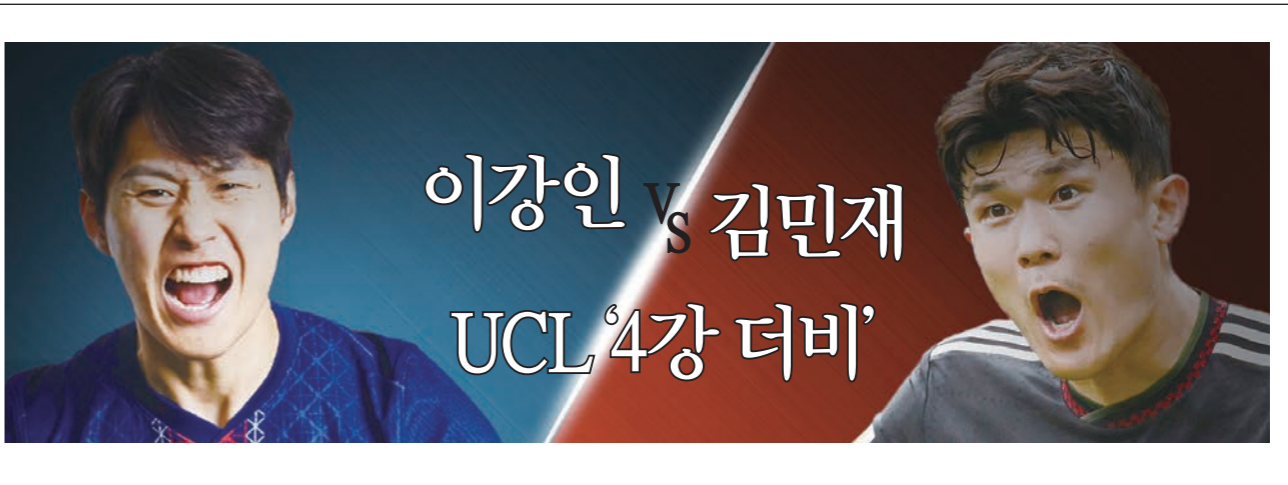
공교롭게도 일본인 투수가 아닌 아시아 쿼터 선수의 성적이 더 눈에 띈다.

한화 이글스의 대만 출신 좌완 선발 투수 왕연청은 3경기에서 2승, 평균자책점 2.04로 호투했고, 호주 출신인 LG 트윈스 좌완 라클란 웰스도 3경기에 선발 등판해 1승 1패, 평균자책점 2.12로 활약 중이다.

유일한 타자인 호주 국적의 제리드 데일(KIA 타이거즈)의 경우 타율 0.327(55타수 18안타), 5타점, 도루 1개로 제 몫을 하고 있다.

특히 올해 나온 14경기에서 모두 안타를 때려내며 최근 KIA 6연승에도 힘을 보탤다. 외국인 선수의 데뷔전부터 연속 경기 안타 기록은 2003년 마리오 엔카르나시온(당시 롯데)의 16경기다.

국내 타자를 포함하면 김용희 롯데 감독이 1982년에 세운 18경기 연속 안타가 기록이다. 글:사건연합뉴스



# 이강인 vs 김민재 UCL '4강 데비'

김민재가 뛰는 독일 프로축구 바이에른 뮌헨이 레알 마드리드(스페인)를 몰리치고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UCL) 4강에 올랐다.

이로써 UCL 4강 무대에서 김민재와 이강인(파리 생제르맹-PSG)의 맞대결이 펼쳐지게 됐다.

뮌헨은 16일(한국 시간) 독일 뮌헨의 알리안츠 아레나에서 열린 2025-2026 UCL 8강 2차전에서 루이스 디아스와 마이클 올리세의 극적인 막판 연속골로 4-3 역전승을 거뒀다.

마드리드 원정으로 치른 1차전에서 2-1로 승리한 뮌헨은 1, 2차전 합계 6-4로 앞서며 준결승행 티켓을 거머쥐었다. 2019-2020시즌 이후 6년 만의 우승에 도전하는 뮌헨의 4강 상대는 '디펜딩 챔피언' PSG다. 29일 오전 4시 프랑스 파리의 파르크 데 프랑스에서 1차전, 5월7일 오전 4시 알리안츠 아레나에서 2차전을 치른다.

김민재와 이강인이 각각 뮌헨, PSG에서 뛰는 동안 양 팀이 UCL 무대에서 대결하는 건 이번이 3번째다.

뮌헨, 극적 준결승 티켓 따내  
29일 PSG와 결승행 1차전

첫 대결인 2024-2025시즌 리그 페이스에서는 뮌헨이 1-0으로 이겼고, 김민재는 풀타임, 이강인은 후반 마지막 25분을 소화했다. 김민재가 결승골을 넣었다. 2025-2026시즌 리그 페이스에서 치러진 두 번째 대결에서도 뮌헨이 2-1로 승리했다.

이번 김민재는 후반에, 이강인은 전반에 교체 투입됐다. 이강인은 후반 주앙 네베스의 만회골을 도왔다.

UCL에 특히 강한 면모를 보여준 레알 마드리드는 두 시즌 연속으로 8강 고지에서 탈락해 자존심을 구졌다.

김민재는 이날 출전하지 않고 벤치에서 경기를 지켜봤다. 요나탄 타, 다요 우 파파의 파르크 데 프랑스에서 1차전, 5월7일 오전 4시 알리안츠 아레나에서 2차전을 치른다.

김민재와 이강인이 각각 뮌헨, PSG에서 뛰는 동안 양 팀이 UCL 무대에서 대결하는 건 이번이 3번째다.

뮌헨이 5분 뒤 알렉산다르 파블로비치의 헤더로 균형을 맞췄으나 골레르가 전반 29분 환상적인 프리킥으로 다시 골망을 흔들었다.

난타전은 계속됐다.

전반 38분 뮌헨의 '주포' 해리 케인이 올 시즌 UCL 12호 골을 터뜨리자 레알 마드리드의 골잡이 칼리안 음바페가 전반 42분 비니시우스 주니오르의 송곳같은 패스를 음바페가 문전에서 마무리해 UCL 15호 골을 넣었다.

UCL 득점 레이스에서 음바페가 1위, 케인은 2위다.

1, 2차전 합계 4-4로 팽팽한 상황, 후반 막판 뮌헨의 뒷심이 빛났다.

후반 41분 레알 마드리드 미드필더 아두아르도 카마빙가가 경고 누적으로 퇴장당했다.

수적 우위를 업고 총공세에 나선 뮌헨은 후반 44분 루이스 디아스가 시리즈 결승골을 터뜨려 기세를 올렸다.

디아스는 페널티아크 왼쪽에서 빨랫줄 같은 오른발 강슛으로 골대를 찼다. 뮌헨은 후반 48분에는 올리세가 왼발 감아차기 슈팅으로 득점에 성공해 승리를 확정지었다.



## 메시, 노쇼 논란 계약위반·사기혐의 피소



'축구의 신' 리오넬 메시(38인터 마이애미)가 국가대표팀 친선경기 불참과 관련한 계약 분쟁으로 소송을 당했다.

AP 통신은 16일(한국 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에 본사를 둔 이벤트 프로모터 '비드 뮤직 그룹'이 메시가 지난해 친선경기에 출전하지 않아 계약 조건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지난날 현지 법원에 메시와 아르헨티나축구협회(AFA)를 상대로 사기 및 계약 위반 혐의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비드 측은 지난해 여름 AFA와 700만 달러(약 103억 원) 계약을 하고 10월에 미국에서 열린 아르헨티나와 베네수엘라, 푸에르토리코의 국가대표팀 친선경기를 독점적으로 기획·홍보할 권리를 확보하는 대가로 티켓, 중계 및 스폰서 이익을 갖기로 했다.

비드 측은 메시가 부상이 아닌 한 각 경기에서 최소 30분 이상 출전하기로 돼 있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메시는 현지시간 10월10일 열린 베네수엘라전(1-0 승리)에 출전하지 않고 경기장 스키야박스에서 가족, 지인들과 함께 관람만 했다. 다음 날 메시는 인터 마이애미의 미국 메이저리그사커(MLS) 애틀랜타 유나이티드와 경기에서 풀타임을 뛰었다. 이 경기는 플레이오프 1라운드 홈 경기 개최권을 확보하는데 중요한 일전이었다. 이후 메시는 10월 14일 아르헨티나와 푸에르토리코와 친선경기(6-0 승리)에도 출전했다.

비드 측은 정확한 손해배상 금액은 명시하지 않았다. 다만, 메시가 출전하지 않은 것과 저조한 티켓 판매로 수백만달러의 손실을 봤다는 것이 이들의 설명이다.

# Inhancer Plus™

## 관절영양제의 혁명

# 인한서 플러스

글루코사민 + 콘드로이틴 + MSM + 브로멜라인 + 레시틴

오프라인 전용

온라인 전용

관절 관리는 치료보다 예방이 중요합니다!